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5면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건의안 놓고 공방펼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이견 많아 표결로 통과

강북구의회가 20일 제1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정식 의원이 발의한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놓고 공방을 펼치다가 표결을 통해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일반적인 사회현상에 구의회 차원의 입장을 담아 처리되는 '건의안'을 놓고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표결까지 가는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이번 영훈 국제중 지정취소 철회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시행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학교로 선정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취소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구 관내 학교이고 지난해 11월엔 영훈 국제중에서 1일명예교사를 지낸 바 있는 이정식 의원의 발의로 올라온 이 건의안은 "교육발전을 통해 교육특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북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영훈 국제중 학교 지정 취소계획이 철회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용균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빌려 영훈 국제중 지정으로 인근지역 중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등 불편을 안고

있어 지정 취소 철회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구본승 의원 또한 국제중 지정 당시 반대 입장이었음을 주장하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또 김도연 의원은 많은 중학생들이 원거리통학을 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학교비리 입학·성적문제와 사교육 유발 등의 이유로, 박문수 의원은 강북구 교육의 활성화나 집값상승 보다는 원거리통학,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달리 이영심 의원은 "설립당시 반대했지만 운영상 비리와 문제가 적절했다면 지정 철회 반대엔 신중한 입장"이라며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발의자인 이정식 의원은 "영훈 국제중을 강북구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시켜 인구 유입과 강북구의 교육특구 면모를 갖추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강남에 편중된 명문학교들로 인해 사회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국제중 신설을 요구하는 마당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제중 지정 철회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정회까지 거치며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됐다.

강북신문 5면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건의안 놓고 공방

20일,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이견 많아 표결로 통과

"강북구의 교육혁신을 위해 국제중 철회가 마땅하다." "일반중 전환으로 원거리통학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강북구의회가 20일 제188회 임시회 마지막본회의에서 이정식 의원이 발의한 '영훈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놓고 공방을 펼치다가 표결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구의회 차원의 입장을 담아 처리되는 '건의안'을 놓고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표결까지 가는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이번 영훈 국제중 지정취소 철회촉구 건의안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대상학교로 선정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취소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구 관내 학교이고 지난해 11월엔 영훈국제중에서 1일명예교사를 지낸 바 있는 이정식 의원의 발의로 올라온 이 건의안은 "교육발전을 통해 교육특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북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영훈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계획이 철회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용균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빌려 영훈 국제중 지정으로 인근지역 중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등 불편을 안고 있어 지정 취소 철회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구본승 의원 또한



이정식 의원

국제중 지정 당시 반대 입장이었음을 주장하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또 김도연 의원은 많은 중학생들이 원거리통학을 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학교비리 입학·성적문제와 사교육 유발 등의 이유로,

박문수 의원은 강북구 교육의 활성화나 집값상승 보다는 원거리통학,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달리 이영심 의원은 "설립당시 반대했지만 운영상 비리와 문제가 적절했다면 지정 철회 반대엔 신중한 입장"이라며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발의자인 이정식 의원은 "영훈 국제중을 강북구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시켜 인구 유입과 강북구의 교육특구 면모를 갖추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강남에 편중된 명문학교들로 인해 사회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국제중 신설을 요구하는 마당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제중 지정 철회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정회까지 거치며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됐다.

영훈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안) 통과

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 촉구안에 대해 의원들 표결,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

강북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장에서 이정식 의원은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정식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시행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영훈 국제중학교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강북구 의원 일동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하며, 특히 평가결과가 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영훈 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대상학교'로 발표되어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혼란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로 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경기 지역에 총 4개의 국제중학교가 있으며, 국제화 시대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훈 국제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북지역에 설립되어 강남 3구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강북과 성북지역 학생들이 매년 50여명이 넘게 입학하고 있어 지역의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중 최우선 과제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영훈 국제중학교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자국에서 외국의 명문학교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여 전국에 강북구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는 명문사립의 모범사례가 되어 많은 구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영훈 국제중학교가 우수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고 실천하는 등 특성화중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지표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여 단순한



수치만으로 계량화하고 단지 감사결과만으로 학교의 운명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또한, 지정취소 청문대상학교로 선정된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선진교육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의원은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영훈국제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훈중학교가 국제화 특성화중학교로서 학생들의 꿈과 미래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에 이용균 의원은 "2008년 영훈중학교 시절의 학급 수 및 학생 수에 비례하여 영훈국제중학교로 전환되며 강북구 거주 학생들은 근거리가 아닌 먼 거리의 중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있다"며, "강북구에 거주하며 영훈국제중에 통학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의 기존 학교를 폐쇄하고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기 보다는 강북구 내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여 그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강북구 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구본승 의원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며 "중학교 입시까지 경쟁으로 과열되고 강북구 내 초등학생들이 인근 중학교로 배정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영훈국제중으로 인해 주변 집값이 오른다는 내용들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작용되었는지 모르겠다. 또 사회자배려 입학기준 문제와 입시경쟁문제가 이슈화 되었던 큰 문제로 불어났을 당시 원전적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문

제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의견과 더불어 표결까지는 원치 않으므로 이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 김도연 의원은 영훈국제중 전환 후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 학교로 다니는 불편함 및 학부모들 역시 힘들게 되었다며, "명문학교는 특성화 중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각종 비리문제로 인해 지정 취소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라며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가 아이들을 받침이 되어 주는 것이 진정한 학교이며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유아 전문 영어교육 학원들이 들어서고 있고 유치원때부터 사교육을 해야 하는 실정하기에 강북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며 오히려 격차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영심 의원은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입장이다"라며 "강북구 관내에 명문 중학교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학생 수가 적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많은 중학교가 입학생 수가 줄어들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훈국제중학교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비리적인 문제를 없애는 것은 분명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박문수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 당시 특성화가 되기 전에 강북구 관내 학생들이 다니던 일반 중학교에서 특성화 국제중학교가 되면서 인근 학생은 강북구 관내 25명 정도만이 다니고 있으며, 국제중학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강북구로 이사를 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강북구의 기존의 학교를 전환할 것이 아니라 녹지대를 활용하여 새로 건립을 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편 표결로 이어진 이번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구본승 의원의 이석을 하였고, 이정식·김영준·유인애·이백균·장동우·김명숙·김동식 의원이 찬성하고, 이용균·김도연·강선경·박문수 의원이 반대, 이영심·한동진 의원이 가결한 가운데 가결되었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